

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 한화-대림 왜 이러나!! ”

석유화학산업계에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다.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이 여천 NCC의 파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것이다.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와 한화석유화학이 1999년 말 자율 Big Deal을 성사시켰을 때부터 우려됐지만 이렇게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이다.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은 6월17일 새벽으로 예정된 여천NCC 파업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노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5월16일 파업을 시작한 지 한달이 넘었으니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림과 한화그룹 회장님들께서 자율 Big Deal을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기자회견까지 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원화 전남경찰청장은 6월17일 여천NCC 파업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유보와 관련해 『김당배 공동대표이사로부터 노-사 협상으로 대립을 풀겠다며 공권력 투입 중지 요청서를 정식 제출받아 경찰력 투입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여천NCC 노-사가 동력부문을 정상화하는 등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대림그룹에서는 이준용 회장이 6월17일 새벽 긴급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뒤 여천으로 내려가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화석유화학을 대표하는 이상철 공장장(공동대표 부사장)은 『대림산업측 대표인 김당배 사장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는 채 공권력 투입 중지 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공권력 투입 없이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에서 김당배 사장의 요구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했으나 결정은 쌍방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림과 한화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당에 아무런 합의없이 대림측이 왜 독단적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힐난으로 들리는 구석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파업 해결의지가 강하고, 정부와 여천NCC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장기간의 파업을 종식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으나 딱히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문제인 듯하다.

대림산업과 한화그룹의 여천NCC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한화는 여천NCC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림은 임금 수준은 차지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림-한화의 시각 차이는 2001년4월 여천NCC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정동진 대표이사 사장이 경영진간의 갈등으로 사임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고, 노동조합 집행부가 한화측 관계자들을 불신하면서 파업으로 이어진 것도 사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화와 대림의 갈등에 노동조합의 파업이 돌발했다는 설이 설득력을 가지는 대목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천NCC가 태생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는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항상 여천단지 임금협상의 선두로서 역할해온 반면, 한화석유화학은 NCC를 건설하기 전까지 LDPE 전문 생산기업으로 급여부문에서 대림보다는 뒤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합과정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동일임금 적용을 놓고 심각한 노-사 갈등이 일어났었고, 언젠가는 한번 터질 수밖에 없는 화약고라는 사실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여천NCC 파업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지 해결결과에 따라 결판이 나겠지만 대림은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강한 반면, 한화는 노동조합의 기세를 꺾음으로써 높은 급여를 해결하겠다는 강경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급여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림-한화의 갈등이 오히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 것이다.

여천NCC가 크래커 3곳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 월 15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인근 14개 석유화학 공장의 가동을 하락으로 월 4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5500억원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이면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가동을 전면 중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액을 부풀리고, 그럼으로써 강력한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면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림산업과한화그룹은자율Big Deal 정신으로돌아가며NCC를정상화하는데무엇이필요한지심사숙고할것을촉구한다.

<화학저널 2001/6/25>